

IDS 사례 연구: 카메라를 통한 유물 보존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직물 유물 손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접근법

예술과 문화 자산 보존에 있어 예방적 보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능한 오랜 시간동안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노후화 과정을 늦추고 재료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화 유산 과학과 물질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공학적인 방법에는 학제간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물은 가장 민감한 예술이며 문화 유산입니다. 생산과 취급, 전시, 보관 과정에서 종종 이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 S-MA-C-H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이외 테피스트리(Bayeux Tapestry)"를 연구했으며, IDS 카메라와 함께 이 섬세하고 특별한 작품을 보존하는데 최적화된, 보존 및 전시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도 및 습도 센서와 중력 압력을 기록하는 힘 센서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의 심장과 뇌는 비접촉식 2D 풀필드 디지털 이미지 상관 기법(DIC)으로, 프랑스 → [USB 3 uEye CP](#) 카메라와 프라임 연구소에서 개발한 디지털 이미지 상관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포트 읽기](#)

